

# “불교 허브 사이트가 성공 열쇠”

‘사이버 포교’를 내세우며 97년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종단과 사찰 그리고 주요 단체들이 예산 부족으로, ‘포교’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가공된 정보) 개발은 고사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에도 힘들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계 인터넷 전문가들이 “예산 대부분을 장비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정보화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익산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단·사찰·단체를 뛰어넘는 범불교적 ‘독립법인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 교계 정보화 과제와 전망

### 예산·인력 부족 정보화 ‘소결음’ 전략적 제휴·e-비즈니스 돌파구

이 곳을 방문하는 네티즌의 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달마넷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찬영(이현시스템 사장) 씨는 “불교정보 자체로는 수익 창출이 어렵지만, 이 정보를 찾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를 한다면 그것을 기대해 볼지라도”라며 “이를 위해 대형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업체와 같이 교계도 허브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독립법인체 설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설립한 인터넷 벤처 ‘솔로몬 아이티’의 경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기독교계 첫 허브 사이트 ‘미션랜드’를 개설할 예정이다. 6월 초 오픈하는 이 사이트는 기존의 기독교 사이트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은 물론 기독교 특성에 맞는 정보 분류 체계와 검색 엔진을 제공해 사용자의 편의를 돕겠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솔로몬 아이티 도흥국 기획실장은 “정보의 집중화와 사이트의 대형화를 실현한 미션랜드는 1백만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돼, 기독교 포교의 교두보, 정보화의 노다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94년부터 조계종이 중부 전산화 및 불교 정보화에 투자한 금액은 대략 15억원. 지난해 총회에서 한 스님이 “지금까지 적은 돈을 투자해 왔는데, 이제 환원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해야 하는 교계 정보화 현실에서, 기독교계 벤처 ‘솔로몬 아이티’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위로부터 부다피아, 고려대장경 연구소, 불교정보센터, 불교학당, 동원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불교와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온 자승 스님(파천 연주암 주지)이 지난 4월 ‘인투사이버닷컴(intocyber.com)’이라는 인터넷 벤처를 창업한 것도 정보화에 따르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교계에서는 부족한 예산으로 현상 유지에 급급한 정보화의 일보전진을 위해, 인터넷 전문가들이 제안한 ‘독립법인체’ 설립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사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데이터 관리·사이트 운영 등을 맡은 최소 3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개발비를 제외한 순수 경성비만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교계 정서로는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독립법인체를 설립하는 여정 역시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주요 종단이나 단체들이 권위를 내세우고 또 정보 공개를 꺼리는 교계 특유의 정서를 먼저 극복해야 한다는 게 인터넷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 불교정보화 어디까지 왔나

### 사이트 및 홈페이지 미비

△사이트의 수적 열세  
유명 검색엔진에 등록된 전세계의 종교 관련 사이트 수는 3만여개. 이중 불교 관련 사이트는 700여개에 불과하지만 기독교 사이트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유명 검색엔진에 등록된 불교 사이트는 230여개, 가톨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개신교에 비해서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조계종의 경우 데이콤과 협력해 달마넷을 98년 출범시켰지만, 후발주자인 가톨릭이 교단차원에서 정보화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숫적인 면에서도 추월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잇따른 종단사태와 이로 인한 불자·시민들의 외면, 종단 지원금의 축소 등으로 정보화에 대한 열기와 관심을 놓친 결과이다.

### △빈약한 콘텐츠

불교 홈페이지의 콘텐츠도 네티즌들을 붙잡아 두기에는 미약하다. 기초교리 안내, 사찰 및 성보 소개 등 내용도 천편일률적이다. 불교 문화재, 미술, 음악, 불서, 선무도, 불교학술, 복지 등 전문성을 살릴 무궁무진한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 사이트 수 개신교의 13% 콘텐츠 낮고 내용 빈약 스님 정보마인드 필요

불교문화의 장점을 활용,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기초적인 자료만 올려놓고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 방문자들이 다시 찾지 않는 홈페이지도 상당수다. 현대불교신문을 비롯한 교계신문들이 제공하는 일·주간 불교뉴스와 불교인터넷TV 등이 제공하는 동영상 자료 등이 그나마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지루하거나 내용의 변화가 없을 경우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그들의 신뢰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메인 확보·해킹방지 비상  
불교 관련 도메인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종단이나 교계단체가 도메인 확보작업을 소홀히 한 틈을 타 개인이나 일반단체들이 불교적인 내용을 갖는 도메인을 선점해 도메인을 뺏기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특히 타종교 단체 및 개인들이 ‘원효’ ‘보문’ ‘조동’ ‘마곡’ ‘지장사’ 등 불교 고유명사를 도메인으로 소유하고 있어 불교비판 등 악의적인 사용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날로 늘어나는 타종교인에 의한 해킹도 사이버 해탈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 △중단 정보화 대책

종단 차원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본·말사 네트워크 구성, 중부행정 전산화, 인터넷 상에서의 불자공동체 구현(동호회 공간 및 무료 이메일 주소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 포교담당 부서는 계층별 지역별 연령별 직장·직능별로 포교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인구 1000만명 중 90%가 10~30대의 젊은 층인 만큼 1사찰 1홈페이지 갖기 운동과 정보화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인터넷이 실질적인 ‘제3의 포교매체’가 될 수 있게끔 제도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정보화 마인드의 제고

△정보 제공자 보다 사용자 중심  
한 개인과 단체, 사찰, 종단에 머물지 않고 불교 전체의 정보 공유를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각 사이트마다 불교포럼을 구성해 분야별 주제를 정해 국경과 언어에 구애됨이 없이 불교 현

안과 불교학 연구, 불교사회운동에 대한 토론을 나눌 수 있도록 인터넷 인드망의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 사이트간 교류 및 공동작업을 활성화하는 분위기도 제고돼야 한다.

특히 이제까지의 정보제공자 중심 사고에서 사용자 즉, 불자 또는 일반인을 위한 쌍방향의 정보교환 서비스로 지향해야 한다.

### △스님들의 인식 전환

전산화교육에 스님들의 참여가 저조해 취소되는 사례가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불교 정보화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감을 일소시킬 수 있는 홍보사업도 필요하다. 스님들이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야만 종단 차원의 정보화 예산 확보와 이를 통한 인적 물적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 조계종 달마넷의 부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스님들의 협조 없이 불교 정보화는 어렵다.

### △사이버 포교 방안 수립

△사이버 포교 활성화  
현재 400여개의 사찰 및 포교당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홍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도권리 및 교육·포교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활용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신학 상담과 고승 설법 등 불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자들이 자주 찾기 어려운 산사는 등산객과 불자들이 모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도심포교당은 일반인을 위한 불교 교양강좌를 소개하고 다양한 사찰 문화강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사이버 불교대학 개설

지난 3월13일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사이버대학 설립·운영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된 만큼 학점과 학위를 수여하는 정식교육기관으로서 사이버 불교대학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80여개의 불교양대학 중 사이버 불교대학 설립을 준비중인 곳은 한국불교선학연구원 한국불교연구원 동산불교대학 등 8곳. 사이버 불교대학의 설립은 불교교육의 저변 확대를 통한 불교 대중화와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 형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불교사이트

### 야후 191·네이버 213개 등록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 속에 불교 사이트는 몇 개나 될까? 검색엔진에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 수를 통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수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야후코리아에 주별 검색을 해 보면 불교 191개, 통일교를 포함한 개신교 1926개, 천주교 165개의 웹사이트가 등록되어 있다. 검색엔진 네이버는 불교 213개, 개신교 2323개, 천주교 154개가 등록되어 있고 검색엔진 심마니도 불교 261

개, 개신교 2892개, 천주교 338개가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불교는 평균 한 검색엔진에 230개 정도로 개신교가 평균 2380여개 등록되어 있는 것에 비해 10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 홈페이지의 경우 종교관련 홈페이지로 등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차이는 엄청나다.

분야별로 세분화 해 보면, 야후코리아의 경우 교리 13개, 각 불교 종파 51개, 사찰 13개, 기관·단체 50개, 불교 예술 15개, 뉴스·미디어 6개 등으로

기독교의 성경 50개, 종파 1251개, 기관·단체 414개, 뉴스·미디어 51개, 교파 78개, 사람들 46개 등에 비해 종파, 기관·단체, 사찰 수는 매우 적다. 이중 문화 관련 홈페이지는 타종교에 비해 불화, 문화재, 관광안내 등으로 불교사이트가 다양하다. 게다가 불교 사이트는 아니지만 개인이나 단체에서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있어 인터넷이 불교를 알리는 포교매체로서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다.

도메인 등록도 타종교에 비해 열세

다. 등록대 전자불전연구소에 의하면, 불교종단 25개 가운데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는 종단은 3개에 불과하고 6곳은 다른 단체나 개인이 이미 등록했다. 또 교구본사 25곳 역시 자체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곳은 5군데로 그의 단체가 5군데를 등록했다. 연구소는 미등록된 36개의 도메인을 등록할 예정이다.

방문자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는 부다피아(buddhapia.co.kr)로 이미 17만명이 넘었고, 5만5천명 가량의 불교정보센터(budinfo.or.kr), 불교 포털을 지향하는 달마넷(dharmat.net)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포털사이트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쉽다.

## 티벳 解脫의 書

# ‘이몸 이대로’ 해탈에 이른다!

보는 것만으로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티벳 최고의 경전!

1200년 전 티벳에 불교를 전한 위대한 스승 파드마삼바바의 <요약 전기>, 그가 가르친 <마음 알기 요가>, 또 다른 스승 파담파 상계가 남긴 <유언적 가르침>으로 구성된 이 경전은, 당신에게 ‘이몸 이대로’ 해탈하는 법을 전해준다.

이상은 일이다. <티벳 해탈의 서>를 읽고 있으면 문득 주위가 밝아지는 느낌이다. 갑자기 해가 하나 떠 방 안을 환히 비추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에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 방광(放光)임이 분명하다. 칼 음은 이 책에서 ‘마음’을 ‘에너지의 변입기’라고 아주 직관적인 표현을 하였다.

이 책은, 새벽 빛에 눈을 뜨고 일어난 사람들이, 그리하여 지혜를 열망하는 사람들, 구도 여행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지식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

— 정현주(소설가)

— 에반스 윈츠

파드마삼바바 지음/에반스 윈츠 편집/칼 음 해설/유기천 옮김  
양양문/432원/15,000원/서점에 있습니다

법보신문 유통하는 분은 후원사로 연례로 주심요, 양인 혜택을 드립니다.

## 티벳 死者의 書

# 죽음을 알아야 삶이 보인다!

죽음의 순간에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해탈에 이르는 티벳 최고의 경전!

사후세계 - 영혼의 행로 49일을 밝혀주는 천년의 경전.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환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영원한 대차유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책!

칼 음이 가장 차원 높은 정신의 과학이라 격찬한 죽음으로 삶을 가르친 중국의 책, 명상의 기본서!

경전 전문에 풍부한 주해를 달고, 칼 음의 심리학적 해설을 비롯한 상세한 해제를 수록하여 원전의 진의를 완벽히 드러낸 국내 최초의 완역본 - 류시화의 우리말 번역으로 읽는 정신세계사의 <티벳 해탈의 서>.

류시화 옮김  
양양문/525원/15,000원/서점에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